

혁신으로 만드는 풍요로운 내일,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 광양세무서 설치 건의

2024. 04. 30

 **광양상공회의소**

# 광양세무서 설치 건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며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동구 광주시방국세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광양시는 세계최대 규모의 광양제철소(조강생산량 3,421만톤, 자동차강판 489만톤),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광양항(207백만톤) 등 호남권 제1의 제조 물류 중심지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개발가속화에 따른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입니다.

최근 5년간 세수 및 사업자 수 증가로 세무 민원 신속 처리 필요  
(세 수) 2017년 3,351억 원 → 2022년 4,946억 원 [1,595억 원↑]  
(사업자수) 2017년 19,290명 → 2022년 27,613명 [ 8,323 명 ↑]

또한 신산업 분야로는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 생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풀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으며, 수소도시 선포를 통해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이송·활용까지 탄소중립을 리드하는 글로벌 수소도시로 변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차전지 산업 투자액 : 7조 7천억 원 /

※ (실현액) 3조4천억 원 ⇨ '30년까지 투자액 4조3천억 원

■ 포스코퓨처엠, SNNC,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HY클린메탈 등

하지만 이처럼 국세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광양 지역에 국세 민원업무를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인들과 시민들은 세무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천세무서까지 최장 50km(왕복이동 2시간, 민원처리 1시간)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천세무서는 광주청 관서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5개 시군)와 면적(3,290km<sup>2</sup>)이 가장 넓고, 세무서 규모(정원 158명)가 최대로 운영되고 있어 순천세무서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기관 간 협업 그리고 기업의 다양한 세무행정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양세무서'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세무서 신설의 우선순위는 관할 지역과 인구수, 국세 납부 실적, 기업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지만, 광양시의 날로 증가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기업의 세무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별 현실에 맞는 세무서 신설 기준은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광양세무서’가 신설된다면 광양시라는 지역을 넘어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소중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상공회의소는 광양시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광양세무서」 설치를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0.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